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이상과 실행과 건축

(금요일 — 저녁 집회)

메시지 6

교회생활의 실행에서 가져야 할 중대한 체험들

(3)

한 새사람의 실재 안에서
실지적으로 교회생활을 실현하는 길

성경: 엡 4:1-3, 딤후 1:3-4, 엡 2:15, 롬 15:6, 고전 1:10

- I.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의 첫째 항목은, 우리가 반드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엡 4:3). 이 하나는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를 달성하거나 얻거나 받을 필요가 없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얻은 것을 지키고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 A. 전류가 전기 자체이듯이, 그 영의 하나는 그 영 자신이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 놀라우시고 다함이 없으신 이 영께서 우리 안에 하나로서 오셨다.
 - B. 요한일서 3장 14절과 15절은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증거임을 말해 준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영 자신이다.
 - C. 참된 그리스도인은 모두 이 하나를 갖고 있다. 이 하나는 다름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놀라우신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살아 계신 주님 자신이다(고후 3:17, 고전 15:45하).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를 받거나 얻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를 지키고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며 분투하는 것이다.
- II.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를 지키는 실지적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다섯 가지 문구가 있는데, 바로 ‘겸허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고’, ‘화평의 매는 띠로’이다. 이 다섯 가지 항목은 교회생활의 실행에서 우리를 점검하는 시험이다. 이 시험에 의해 우리는 자신이 실지적으로 교회생활 안에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다.
- A. 우리는 다른 이들에 대해 더 높은 기준을 세우지 말아야 하고, 겸허하게 더 약한 이들을 사랑해야 한다.
 - 1. 우리가 그리스도 자신 이외의 다른 무언가를 우리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겸허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높은 기준을 제시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태도에서 겸허하지 않은 것이다.
 - 2. 어떤 것이 아무리 좋고 하늘에 속하며 영적일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자신 이외의 것이 라면 분열을 일으킬 것이다.
 - 3. 좀 더 연약한 이들, 좀 더 어린 이들, 그리고 뒤로 물러난 이들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의 대부분을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겸허가 아닌 교만에서 나온 높은 기준을 세울 것이다.

- B.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희생하여, 태도에서 온유해야 한다 — 민 12:3, 마 5:5.
1. ‘온유’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온화함과 부드러움과 이기적이지 않음을 함축한다.
 2. 온유는 이기적이지 않은 태도의 문제이다. 이기적이지 않은 태도는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결코 자신을 위해 논쟁하지 않고, 결코 자신을 위해 변명하지 않는다 — 비교 대하 1:10, 골 2:2-3, 빌 4:5, 민 12:3.
 3. 온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우를 받든지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만 한다.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절대로 가혹하거나 냉정하거나 잔혹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4. 합당한 태도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이기적이지 않아야 한다. 이기적이지 않은 것이 온유함과 온화함과 부드러움을 산출한다.
 5. 여러 지방의 교회들에서, 많은 문제들이 주로 잘못되고 부주의하고 차갑고 가혹한 태도에서 비롯된다. 사탄은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 언제나 부주의한 태도들을 사용한다 — 엡 6:16.
 6. 교회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는 교회생활이 거칠지 않고 매우 섬세하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예표에 따르면, 교회는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 단체적인 소제물, 곧 무교병이다 — 레 2:1-5, 고전 10:17.
- C. 오래 참음은 부당한 대우를 견디는 것이다. 오래 참음은 주로 우리가 하는 말과 관계있다.
1. 어떤 형제가 우리를 부당하게 대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교회생활의 유익을 위해 우리는 그것에 대해 한 마디도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하나 입 밖에 내고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오래 참음이나 인내가 요구되지 않는다.
 2. 인도하는 형제들이 다투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즉시 다른 형제에게 가서 그것을 이야기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공과를 배웠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그분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한 마디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3. 우리가 이렇게 합당한 방식으로 우리의 말을 절제하기를 배운다면, 우리는 교회생활에서 ‘참다’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것이다.
 4. 어떤 메시지를 들은 즉시, 우리는 메시지를 전한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공과를 배웠다면, 메시지에 대해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교회생활의 실행의 유익을 위해 사역에 관해 부정적인 어떤 것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입은 성령의 통제 아래 있을 것이다.
 5. 우리의 말과 대화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더 많이 교회를 손상시킨다. 이야기가 일단 제삼자에게 전해지면 그 이야기는 바뀌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크게 과장될 수 있다. 소문은 항상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
 6. 오래 참음의 공과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입을 제한하고 우리의 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고통을 체험해야 한다.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지만, 교회생활이 손상되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 바름과 인도가 없다면 한 마디도 말해서는 안 된다.
- D.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기 위해, 우리는 교회생활 안에서 의심과 두려움에 맞서 싸워야 한다.
1. 의심과 두려움을 갖는 대신에 우리는 오직 사랑만을 가져야 한다. 사랑이 교회생활에서 우세해야 한다. 사랑은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가 되거나 무언가를 하기 위한 가장 탁월한 길이다 — 고전 12:31하.
 2. 어떤 형제를 의심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없어졌음을 의미한다. 의심 후에는 두려움이 뒤따른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온전한 사랑은 도리어 두려움을 쫓아냅니다.”라고 말한다.

3.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갖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유혹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 교회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유혹을 거절해야 한다 — 비교 전 7:21-22.
- E. 우리는 화평의 때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켜야 한다.
1. 우리가 하나님과만 화평을 갖고 모든 형제들과는 화평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생활을 잃어버린 것이다.
 2. 교회생활은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갖는 화평뿐 아니라 또한 수평적으로 모든 형제들과 갖는 화평에 의해서 점검된다.
 3. 우리는 어느 누구와도 지나치게 깊은 관계를 맺거나 지나치게 무관심한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한다. 화평의 때는 띠는 교회 안에서 균형 있게 관계를 맺는 것이다.

III.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5절에 나오는 ‘한 새사람’을, 로마서 15장 6절에 나오는 ‘한 입’과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나오는 ‘같은 것을 말하고’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

- A. 한 새사람인 교회를 위해, 우리는 모두 말하는 문제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해야 한다 — 마 12:34-37, 엡 3:17상, 요 7:16-18, 8:28, 38상, 12:49-50, 14:10.
- B. 성경 전체는 한 입을 갖고 있고 같은 것을 말한다 — 히 1:1-2상.
- C. 오늘날의 기독교에는 많은 입들이 있고, 각각의 입이 서로 다른 것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설교자마다 자신의 것을 말하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다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가련한 상황이다 — 창 11:7, 9.
- D. 과거에는 너무 많은 인격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입들이 있었다.
- E. 한 새사람 안에는 같은 것을 말하는 한 입이 있다 — 롬 15:6, 고전 1:10.
- F. 오직 한 새사람만 있고, 한 새사람에게는 오직 한 인격만 있다. 따라서 한 새사람은 한 입으로 말하고 같은 것을 말한다.
- G.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고 ‘한 입으로’(롬 15:6)는 비록 많은 우리가 있고 모두가 말하지만, 우리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한다’(고전 1:10)는 것을 의미한다.
1. 교회는 오직 한 인격 — 그리스도 — 만을 가진 한 새사람이고, 이 인격이 우리의 말을 통제한다. 따라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분명 ‘같은 것’이다.
 2. 우리는 무언가를 말하려고 할 때에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데에 있어서 내가 인격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인격이신가?”
 3. 우리가 말하는 것에서 우리 자신을 인격으로 삼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인격이 되시도록 허락해 드린다면, 이럴 때 한 입이 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은 같은 것을 말할 것이다.
- H. 한 새사람 안에는 오직 한 인격만 있고, 오직 이 인격만이 말할 자유를 가진다 — 마 17:5.
1. 한 새사람 안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을 말할 자유가 없다.
 2. 주 예수님께만 말할 절대적인 자유가 있고, 우리의 타고난 사람은 말할 자유가 조금도 없다.
- I. 비록 많은 우리가 있고 우리가 여러 곳들에서 왔지만, 우리는 모두 한 입을 갖고 있고 같은 것을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한 인격을 가진 한 새사람이기 때문이다 — 엡 2:15, 4:22-24, 3:17상, 롬 15:6, 고전 1:10.
- J.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든다면(오직 그분만이 머리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 아래로 완전히 들어간다면), 우리는 성경을 다르게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 딤후 1:3-4, 골 2:19.

1. 누군가가 머리이신 분을 붙들지 않을 때 차이점들이 발생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한 지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지체에게는 저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2. 그리스도는 몸 안에서 유일한 권위이시다. 모든 지체들의 위치는 머리이신 분을 붙잡고 그분을 모든 것에서 유일한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것이다.
- K. 오직 한 종류의 사역만이 건축하고 결코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데,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유일한 사역이다 — 딤후전 1:3-4.
1. “사람의 교만은 언제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만들기를 좋아한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말하면, 나는 나의 교만으로 인해 여러분이 말한 것을 결코 말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말한 것과 다른 무언가를, 곧 새롭고 더 좋은 무언가를 말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것이 자아이고, 이것이 육체에 속한 교만이다.”(신성한 경륜, 138쪽)
 2. 우리가 한 새사람을 위해 영원한 하나 안에 보존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동일한 것, 곧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치는 것이다 — 롬 15:6.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새사람 안에는 오직 한 입만 있음

몸은 서로 지체가 되는 문제이지만, 새사람은 몸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고 한 입으로 ...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로마서 15장 6절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 말씀을 이해했다고 느끼지 않았다. 어떻게 그토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오직 한 입만 가질 수 있는가? 나는 그 당시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교회가 한 새사람임을 보았다.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입을 갖고 있는가? 하나뿐이다. 우리 모두는 서로 지체일 뿐 아니라 또 한 입으로 말한다. 당신은 우리에게 대하여 얼마나 많은 요구가 있는지 아는가? 서로 지체가 되는 것만으로 충분한 제한이 되는데, 또 지금 말할 때조차도 우리는 한 입으로 말해야 한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다. 이것은 바울의 말이다. 한 새사람은 얼마나 많은 입을 갖고 있는가? 하나이다. 그렇다면 그 입이 누구인가?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가 그 입이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너무나 초월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은 한 새사람에게는 오직 한 인격만 있음을 보아야 한다. 온몸 안에 오직 한 입이 있지만 누가 이 입을 통제하는가? 그 입을 통제하는 것은 인격이다.

교회는 몸일 뿐 아니라 한 새사람이다. 몸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삼아야 하고, 반면 새사람은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삼아야 한다. 당신이 말하고 싶을 때나 내가 말하고 싶을 때, 혹은 우리 중 누가 말하고 싶을 때, 우리는 반드시 기본적인 질문을 해결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인격은 누구인가? 만약 당신 자신이 그 인격이라면 당신은 당신의 입을 갖고 있다. 만약 내가 그 인격이라면 나는 내 입을 갖고 있다. 따라서 당신은 당신의 입을 갖고 있고, 나는 내 입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두 입이 있다. 각자가 개별적으로 한 인격일 때, 각자가 그 자신의 문제들을 말할 때, 우리는 많은 입을 갖게 된다. 이것이 사회이고 교파이다. 이것이 오늘날 타락한 기독교의 상태이다. 그러나 주님의 회복 안에서 교회는 몸이고, 한 새사람이다. 몸은 그리스도를 생명 삼고, 새사람은 그리스도를 인격 삼는다. 당신이 말할 때 그 인격은 당신이 아니고, 내가 말할 때 그 인격 역시 내가 아니다. 어느 누가 말하더라도 그

인격은 그리스도이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 결과는 오직 한 입만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이 “여러분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고”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이 구절은 여러 해 전에 나를 아주 괴롭혔다. 나는 “어떻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나에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 날 나는 이해했다. 교회는 오직 한 인격만 있는 한 새사람이며, 이 인격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제한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무슨 말 씬을 하시든지 분명히 그것은 우리 모두가 새사람으로서 말해 내는 ‘같은 말’이다.

오늘날 기독교 안의 많은 설교자들과 목사들이 모두 자신의 인격을 갖고 있고, 모두 자신의 입을 갖고 있고, 모두 자신의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많은 입을 갖고서 각자가 서로 다른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교회는 이와 같지 않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삼는 한 새사람이다. 형제자매들이 어떤 것을 말하려 할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인격으로 삼는 대신에 그리스도가 그들의 인격이 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당신이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인격이 되시게 하고, 나도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격이 되시게 한다. 결국 모두가 같은 말을 한다.

성경을 생각해 보라. 구약과 신약의 육십육 권은 사십여 명의 서로 다른 저자들이 천오백 년 내지 천육백 년에 걸쳐 여러 장소에서 기록한 책들이다.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B. C. 1500년경에 쓰였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A. D. 90년경에 쓰였다. 그런데 그것들이 모두 한 입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것들은 모두 같은 말을 하지 않는가? 전체 성경은 비록 여러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기록했지만, 한 입으로 같은 말을 한다. 이제 당신은 한 입으로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이 무슨 뜻 인지를 이해할 것이다. 동양에서, 서양에서, 미국에서, 독일에서, 영국에서, 일본에서,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있지만, 모두 한 입으로 한 가지를 말하고 있다. 비록 우리의 수가 많고 여러 나라 들에서 왔지만 우리 모두가 한 입을 갖고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오직 한 인격을 가진 한 새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내가 여기서 여러분과 교통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것이다. 나는 몇 번이나 말해 내고 싶었지만, 내 속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이가 나인가, 아니면 주님인가를 자문하 면서 점검해 보았다. 달리 말해서, 말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인격이 주님인가, 아니면 나인가? 만약 그것이 내 자신이라면 문제가 있을 것이고, 주님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만약 내가 주님께서 인 격이 되시도록 허락해 드린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두 달이 지나서 만약 당신이 주님께서 인격이 되시도록 허락해 드린다면, 당신은 내가 한 말과 똑같은 말을 할 것이 다. 우리는 같은 것을 말하는 한 입을 갖고 있다.

당신은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모든 설교자가 자신의 것을 말하고 싶어 하며, 다른 사람이 이미 말 한 것을 말하는 것은 수치라고 여기기 때문에, 가련한 상황이 되었음을 볼 것이다. 따라서 당신은 당 신의 것을 말하고, 그는 그의 것을 말한다. 때때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미 말한 것을 빌려 말 하겠지만, 그것을 은밀히 행할 것이다. 실지로 이러한 일이 미국에서 발생했다. 십오 년 전에 주님의 회복이 미국으로 건너가기 전에, ‘사람의 영’과 ‘변화’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나, 지금은 이 말들이 평범한 용어가 되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를 연구하기 위해 우리의 재료들을 사용하 기도 했는데, 그들은 그 연구를 끝내고서 그것을 출판한 뒤에, 그것들을 그들의 연구를 통하여 스스 로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따르는 상태에 있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따라 말하고 당신도 역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따라 말하여,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

가 오직 한 입을 갖고 있고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당신은 어느 경우에도 그 상태가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기독교 안의 상태를 원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사람을 따르는 상태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한 새사람이 말하는 그 상태를 원한다. 오직 한 새사람이 있고, 이 한 새사람은 오직 한 인격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한 새사람은 한 입으로 같은 말을 한다.

새사람 안에서는 우리 자신의 것을 말할 자유가 없음

새사람 안에는 우리 자신의 것을 말할 자유가 없다. 이것은 서로 지체가 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제한하고 구속한다. 모두가 자신을 가장 제한하는 것이 말하는 문제임을 알고 있다. 만약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다면, 나는 매우 제한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다면, 나는 매우 자유롭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특히 새사람 안에서 당신의 타고난 사람이나 나의 타고난 사람은 말할 자유가 없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새사람의 인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새사람 안에는 오직 한 인격만 있다. 오직 이 인격만이 말할 자유가 있고, 우리의 타고난 사람은 절대적으로 말할 자유가 없다. 주님은 절대적으로 말할 자유를 갖고 계시지만, 나는 절대적으로 말할 자유가 없다. 우리는 타고난 사람이 말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우리는 명확히 그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오직 한 인격만이 말해야 한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5절에 나오는 ‘한 새사람’을, 로마서 15장 6절에 나오는 ‘한 입’과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나오는 ‘같은 것을 말하고’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로마서 15장 6절과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온 교회가 오직 한 입만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수백만의 지체들이 같은 말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할 것이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이 한 지방에 있는 교회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한다. 한 지방에 있는 교회 안에는 반드시 한 입이 있어야 한다. 여기 타이베이에서는 오직 한 입만 있어야 한다. 또한 동남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도 오직 한 입만 있어야 한다. 이것은 오직 한 인격만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여러분들은 너무 많은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입이 있었다. 많은 인격이 있을 때 많은 사상이 있다. 많은 사상이 있을 때 많은 의견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감사한 것은 여기에는 오직 한 입과 한 인격만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경찰이 없고, 우리 각 사람이 절대적으로 자유롭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또 다른 인격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자유가 없다. 당신이 막 말하려 할 때 어떤 것이 속에서부터 당신을 ‘꼬집어’ 당신에게 어떤 말도 하지 말라고 말한다. 당신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감사합니다!”이다. 당신이 다시 말하고 싶을 때 주님께서 당신을 다시 꼬집으셔서 당신은 다만 “아멘!”이라고 말한다. 만약 주님께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을 꼬집지 않는다면, 내가 말하지만,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일 때 분명히 다툴 것이다.

타이베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툼이 없다. 그 이유는 여러 해 동안 그들이 그리스도를 그들의 인격으로 취할 수 있는 은혜를 가졌기 때문이다. 말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당신도 아니고, 그도 아니고, 형제들도 아니고, 자매들도 아니다. 오히려 각 사람은 “주님, 당신께서 말씀하십니다!”라고 말한다.

우리가 말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반쪽의 입술만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지 않다. 오히려 우리는 여덟 개의 입술을 갖고 태어난 것 같다. 그러나 젊어서 나는 이러한 신중한 계산을 했었다. 내가 사람이 되는 것은 내게 달린 것이 아니었지만, 만약 내가 사람이라면 나는 반드시

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나는 반드시 성경에 따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만약 내가 성경을 따라 산다면 나는 ‘뉘일’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때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그런가? 내 안에 있는 그 인격이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나는 인격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인격이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뿐 아니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해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풍성을 먹고 받아들여 우리의 존재 안으로 흡수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그분께서 우리의 인격이 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함께 그리스도를 새사람 안의 인격으로 취함

당신이 온 땅의 기독교를 살펴봐도 ‘그리스도를 인격으로서 취한다’는 말을 들어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말이 분명히 성경 안에 있다. 교회가 바로 새사람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 새사람은 한 인격을 필요로 하는데, 누가 이 인격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아는가? 그것은 에베소서 3장 17절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고자 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인격이 되기 원하신다는 뜻이 아닌가? 당신이 어떤 집 안에 살면서 그 집을 당신의 거처로 삼을 때, 당신은 그 집의 인격이 된다. 에베소서는 다른 모든 책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는 것에 관하여 보다 분명하게 말한다.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인격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서 당신의 인격으로 계시고, 내 안에서 내 인격으로 계시며, 또 다른 사람 안에서 그의 인격으로 계신다는 뜻이 아니다. 이것은 합당하지 못한 이해이다. 나는 그분께서 우리 모두 안에서 한 인격으로 계신다고 말하겠다. 당신 안에 있는 인격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인격이다. 우리는 모두 오직 한 인격만 갖고 있다. 누가 이 인격인가? 이 인격은 그리스도이다.

형제자매들이여, 이 시대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돌아오시기 전에, 우리는 몸과 새사람을 보아야 한다.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 곧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를 때, 그 영과 신부가 나타난다. 성경 끝에서 새사람은 한 신부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체험은 분명히 이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먼저 교회는 몸이고, 그다음은 새사람이며, 마지막으로 신부이다. 그것은 기독교 안에서 어떤 이들이, 믿는 이들은 결국 한 장소로 함께 모일 것이고,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즉시 그분의 신부로 바꾸실 것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아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는 은혜를 받아 몸을 보고, 새사람을 보고, 마지막으로 신부를 보아야 한다.

몸은 움직임을 위한 것이고, 새사람은 생활을 위한 것임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이상에 있어서 최고의 지점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이는 몸과 새사람과 신부에 관한 우리의 지식이 충분하지 않고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가 몸과 새사람에 관한 어떤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몸은 생명의 문제이고, 새사람은 인격의 문제이다. 몸은 움직임을 위한 것이다. 몸은 행동을 위한 도구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바로 한 몸 안에서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을 하나님께 화목하게 했다. 이 화목하게 됨은 몸의 문제이다. 과거에 우리는 당신이 구원받았을 때 당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내가 하나

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달리 말해서, 우리는 각각 개별적으로 구원받았고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그릇된 관념이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단체적인 한 도구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이 도구가 무엇인가? 이 도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한 몸 안에서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은 몸이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임을 보여 준다.

움직일 때 우리는 우리의 몸 안에서 움직인다.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나는 나의 몸 안에서 그렇게 했다. 또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할 때, 나는 나의 몸 안에서 그렇게 한다. 만약 내가 나의 몸 안에 있지 않다면, 나는 말할 길이 없을 것이다. 나의 모든 행동은 나의 몸 안에서 이루어진다. 나의 몸은 여러 행동들을 위한 도구이다.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은 하나의 행동이고, 이 행동은 몸 안에서 몸에 의해 수행된다. 우리의 몸은 움직임을 위한 하나의 도구이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움직임의 필요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히 건강하고 강할 수 있도록 확대되고 자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새사람은 어떠한가? 새사람은 움직임을 위한 것이 아니다. 새사람은 결정을 내리고 생활하기 위한 것이다. 한 사람으로서 당신은 전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살아가야 한다. 몸은 움직임을 위한 것이고, 새사람은 생활을 위한 것이다. 새사람에 관하여, 에베소서 4장 24절은 새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한다. 의와 거룩함은 우리의 생활의 상태이다. 따라서 생활은 전적으로 새사람의 문제이다. 새사람은 생활을 위한 것인데, 우리의 생활의 팔, 구십 퍼센트가 결정을 내리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당신은 두 가지를 보아야 한다. 몸으로서 교회는 움직이기 위한 것이고, 새사람으로서 교회는 결정을 내림으로 생활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여 행동하고 일하고 책임을 짊어진다. 다른 한편으로 교회는 새사람이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여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생활 방식을 결정한다. 그러나 그것이 몸이든 새사람이든, 일하고 움직이는 것이든 생활하고 결정하는 것이든, 모든 것이 단체적이다. 여기에 개인적인 것이 없다. 당신은 오늘날 당신의 생활이 새사람의 생활 곧 단체적인 생활이고, 당신의 결정이 개인적인 결정이 아닌 단체적인 결정이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은 공장을 세워야 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자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결론을 내려야 할지 모른다. 여기에 일종의 생활이 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이 새사람 안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본다면, 당신 스스로가 인격이 되어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새사람 안의 다른 모든 부분들과 함께 당신의 인격으로서 취하고 싶을 것이다. 당신이 자신의 인간적인 생활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려 할 이때에 당신은 자신을 인격으로 취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당신은 그리스도를 새사람 안의 인격으로 취하여 결정을 내릴 것이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당신의 인격으로 취하는 삶을 살 때, 당신의 생활은 새사람의 생활일 것이다.

새사람의 생활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의(義)이고 다른 하나는 거룩함이다. 의는 하나님의 길에 따른 것이고,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성에 따른 것이다. 당신의 생활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크든 작든, 그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본성과 정확히 일치하고, 그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길과 정확히 일치할 때 거기에 거룩함과 의가 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생활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개인적인 성화(聖化)의 생활이 아니다.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생활은 당신이 새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하고, 그분이 당신 안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는 분이 되시게 하는 생활이다. 따라서 살아 나타

나는 모든 것이 의이고 거룩함이다. 이것은 우리의 움직임이나 일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관련된 것이다. 이것이 새사람의 방면이다. 다른 한 방면은 몸이다. 몸으로서 우리는 움직인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이고, 또 우리의 움직임은 우리 자신의 힘이나 우리 자신의 생명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과 힘이신 그리스도께 근거한다. 더욱이 우리의 움직임은 개인적인 움직임이 아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개인주의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는 우리가 단체적인 몸이자 단체적인 새사람임을 보아야 한다. 우리의 생활이 단체적이고, 우리의 움직임도 단체적이다. 우리의 움직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한다. 몸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새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격이시다. 몸 안에서 우리는 서로 지체이고, 새사람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입으로 같은 말을 한다. 이것이 교회이다. *(한 몸, 한 영, 한 새사람, 92-104쪽)*